"日 아베 정부, 경제침략 멈춰라"

전주시의회, 규탄 결의… "과거사 문제 사죄 · 강제징용 배상판결 성실히 이행"

전주시의회가 일본 아베 정부의 악의적이고 일방적인 경제침략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시의회는 9일 전주시의회 청사 앞에서 아베 정부가 자행하고 있는 경제침략 행위를 즉각 중단하는 것은 물론 과거사 문제를 사죄하고 강제징용 배상판결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요구하는 규탄대회를 열었다.

시의회는 "세계경제 강국이자 국제사회 주요 리더 중 하나인 일본이 그 의무와 역할을 저버리고 있다"며, "아베 정부의 악의적인 경제침략 행위가 한일 양국의 평화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도 모자라 우리의 주력 수출산업을 크게 흔들고 있다"고 경제침략 행위 중단을 촉구했다.

시의회는 또 "아베 정부의 만행에 대한민국 국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며 "아베 정부는 양국 국민들이 피땀 흘려 지켜온 자유민주주의와 수십 년에 걸쳐 다져온 양국 간 우호를 짓밟는 무책임한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박병술 의장은 "아베 정부의 오만한 경제 침략행위를 이대로 두고 볼 수 없다"며 "전주시민들과 한마음 한 뜻으로 아베 정부의 비상식적인 침략행위에 적극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시의회는 지난 24일 제362회 임시회에서 일본 정부의 부당한 경제 도발 행위 철회를 요구하는 규탄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송효철 기자

지난 9일 전주시의회 입구에서 박병술 전주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전주시의원들이 일본 아베 정부의 경제침략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조용식 전북경찰청장은 제 74주년 8.15 광복절을 맞아 지난 9일 전북보훈회관을 방문해 전북보훈단체 지부장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국가유공자 공헌 · 노고에 감사"

조용식 전북경찰청장, 광복절 맞아 보훈회관 방문

조용식 전북경찰청장은 제 74주년 8.15 광복절을 맞아 지난 9일 전북보훈회관을 방문해 전북보훈단체 지부장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에서 조용식 전북경찰청장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의 숭고한 희생정신으로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다." 며, "공헌과 노고에 감사와 위로의 뜻을 전한다."고 전했다.

또한, 조용식 청장은 "최근 북한 미사일 발사, 일본의 경제제재 등 안보와 경제에서 우려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며, "국가안보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다. 경찰의 호국보훈의 정신을 가슴깊이 새겨 믿음직한 전북경찰로 거듭 나겠다."고 말했다.

이의산 전북보훈단체협의회장은 "전북청장 취임을 축하 하고 전북치안을 책임지고 있는 수장으로서 노고에 감사를 전한다." 며, "보훈단체를 잊지 않고 자리를 마련해줘 너무 감사하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보훈단체협의회는 '광복회, 특수임무유공자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6.25참전 유공자회, 상이군경회, 고엽제전우회, 월남전참전자회' 등 9개 협의체로 국가안보를 위해 공헌 · 희생한 분들의 보훈정신을 계승하고 승화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김영태 기자

전주비빔밥축제 해외 관광객 유치 나섰다

전주시-시의회-축제조직위, 대대적 홍보활동 전개

전주시가 국내 관광산업을 이끌고 있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글로벌 미식축제인 전주비빔밥축제의 해외 관광객 유치에 나선다.

시는 지난 9일 '2019 전주비빔밥축제'의 국내 · 외 홍보를 위해 선기현 전주비빔밥축제조직위원장과 김남규 전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승섭 전주시의회 문화경제위원회 부위원장과 함께 한국관광공사를 방문해 전주 관광자원을 소개하며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시는 국내 유일의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이자, 가장 한국적인 맛의 도시에서 열리는 전주비빔밥축제에 많은 관광객들이 찾을 수 있도록 한국관광공사의 국제네트워크를 이용한 홍보에 나서줄 것을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김남규 전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올해 열리는 전주비빔밥축제는 전주를 방문하는 모든 관광객에게 멋진 여행, 소중한 추억을 안겨줄 것으로 확신한다"며 협조를 당부했다.

정상택 전주시 관광산업과장은 "전주비빔밥축제를 글로벌 음식관광축제로 육성하기 위해 해외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전주비빔밥축제가 지역을 넘어 국내는 물론 세계인이 즐겨 찾는 글로벌 명품축제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후진 승용차 피하다 트럭 2대 정면 충돌

삼천동 한 도로서… 2명 숨져 1명은 크게 다쳐 병원서 치료

지난 9일 오전 5시 20분께 전북 전주시 삼천동의 한 도로에서 A(46)씨가 몰던 2.5t 트럭과 마주 오던 B(40)씨의 2.5t 트럭이 정면 충돌했다.

이 사고로 A씨와 B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모두 숨지고 A씨 트럭에 함께 탄 동승자(47 · 여)가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또 코란도 차량이 추돌하면서 운전자 C(65)씨가 경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날 사고는 트럭을 몰던 A씨가 앞서가던 코란도 승용차가 후진하자 이를 피하려고 중앙선을 넘었고 반대편 차선에서 마주 오던 B씨의 화물트럭과 충돌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목격자를 상대로 사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김영태 기자

'여신도 성폭행' 이재록 목사, 징역 16년

대법원서 확정… "권위 억압돼 항거불능 상태"

교회 여성 신도들을 상습 성폭행한 이재록(76)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가 중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9일 상습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목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16년 및 8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아동 ·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 목사는 여성 신도들을 기도처 등으로 오게 한 뒤, 종교적 권위에 억압돼 항거 못 하는 상태를 이용해 수차례 간음 · 추행했다"면서 "하나팀을 결성해 신도들을 간음했다는 사실을 인정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피해 신도들은 범행 당시 이 목사에 대한 절대적 믿음을 가진 상태여서, 절대적 권위를 가진 이 목사의 행위를 인간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 자체를 단념했다"며 "심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이 목사는 2010년 10월부터 5년간 서울 광진구 소재 아파트에 마련된 자신의 기도처에서 여성 신도 7명을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20대 여신도들을 상대로 자신과 영육간 하나가 된다는 뜻의 '하나팀'을 만든 뒤 기도처로 불러 성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서울 구로구 소재 만민교회는 신도 13만명 규모로 알려졌으며, 교회 여성 신도 6명은 지난해 4월 이 목사가 권위와 권력을 이용해 성폭행을 저질렀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1심은 "피해자들은 어려서부터 교회에 다니며 신앙에 전념해 이 목사를 신적 존재로 여겼고, 복종이 천국에 가는 길이라 믿어왔다"면서 "이 목사는 이런 절대적 믿음을 악용해 장기간 상습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지난 5월 항소심 재판부는 추가 피해자가 나온 점을 고려해 형을 일부 가중, 징역 16년에 8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10년간 아동 ·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선고했다.

/뉴시스

무진장소방서, 국지성 호우로 인한 계곡 내 고립자 구조

무진장소방서(서장 박덕규)는 지난 8일 계곡(무주군 설천면 심곡리)에서 물놀이 하던 중 국지성 호우로 인한 불어난 물에 의해 고립된 수난사고에서 요구조자를 안전히 구조 완료했다.

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8일 16시 58분경 지나가는 행인이 물놀이 하던 야영객이 가운데 고립되어 있다고 119에 신고된 건이라고 전했다.

무주119구조대 외 2대가 현장에 도착하여 보니, 이 수난사고는 야영객이 보트를 타던 중 물길에 휩쓸려 바위 위에 고립된 사고로 확인됐다.

이에, 무주119구조대는 요구조자 한모(22)씨에게 구명환을 이용해 구조했으며, 요구조자는 다행히도 큰 부상을 입지 않았다.

현장에 출동한 대원은 "구명환을 활용한 수난구조기법에 요구조자가 안정적으로 협조해주어 구조를 무사히 할 수 있었다"며 "모든 야영객들은 국지성 호우 시에는 물가 밖으로 나오는 등 물놀이 시 안전수칙에 숙지하여 안전사고 예방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농생명 분야 빅데이터 입힌다

전주시, 13억여원 들여 클라우드 기반 ICT 융합 플랫폼 개발 등 추진

전주시가 지역 특화산업인 농생명 분야의 빅데이터를 수집 · 축적하고 가공 · 분석해 더욱 지능화된 비즈니스 모델 만들기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지역 농생명 ICT(정보통신기술)기업인 ㈜메디앙시스템, 전북대, 솔루션 회사인 ㈜아이티아이즈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농생명 분야 클라우드 기반 ICT융합 플랫폼 개발 및 실증 · 사업화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에 선정돼 국비 10억원 등 12억7000만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농생명과 관련해 수집 · 축적된 데이터를 언제 어디서든 이용할 수 있는 클라우드를 활용해 기업이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도록 서비스를 운영하는 플랫폼 구축 사업이다.

진흥원은 이를 위해 지난 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사업 수행을 위한 협력을 체결하고 내년도 사업 완료를 목표로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돌입했다.

우선 전주 등 로컬푸드에 농산물 유통관리 소프트웨어를 납품하는 지역기업인 ㈜메디앙시스템이 보유한 로컬푸드 농산물 유통데이터를 활용해 클라우드 기반 플랫폼 구조 설계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데이터를 저장할 클라우드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내 최대 규모의 클라우드상품을 개발 · 보유한 ㈜NBP(네이버 비즈니스 플랫폼)를 민간 사업자로 선정했다.

이 같은 클라우드 기반 플랫폼이 구축되면 로컬푸드 수요와 가격예측 서비스 외에도 영농이력정보, 생육 및 환경 데이터베이스 등을 분석해 농작물 재배 노하우를 편리하게 공유할 수 있게 된다.

또 농작물 재배조건 표준화 등을 추진하는 영농경영관리에도 큰 효과가 예상된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서문산성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은 "이 사업은 그간 전주시가 추진해 온 농생명 ICT융합 사업이 데이터에 기반해 새로운 기업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낼 기회"라며 "지역의 농생명 기관과 농생명 ICT융합 기업들이 협력한다면 농생명 분야 데이터 플랫폼의 메카로 자리매김은 물론 향후 인공지능 시대에 대비해 더욱 지능화된 첨단 미래 농생명 산업의 첨병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신문배달원 사망사고' 뺑소니 친 20대 징역 1년6개월

재판부, "엄중 처벌 불가피"

전주지법 형사6단독 안영화 판사는 9일 신문배달원을 차로 치고 달아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도주치사 등)로 기소된 정모(22)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안 판사는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강하게 충격해 탑승자가 큰 피해를 받을 게 분명한데도 돌보지 않아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 "피해자는 여러 차례 뇌수술을 받고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다 끝내 사망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정씨는 지난 1월 9일 자정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사거리에서 오토바이를 탄 채 신호를 기다리던 신문배달원 김모(56)씨를 차로 치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크게 다친 김씨는 혼수상태에 빠졌다. 여러 차례 뇌수술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김씨는 사경을 헤매다가 결국 지난달 12일 숨졌다.

제대를 앞둔 상근예비역이던 정씨는 사고 12시간여 만에 경찰에 자수했다. 그는 당초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사고를 냈다. 무서워서 도망쳤다"고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군 수사단계로 넘어간 뒤 음주 사실을 부인하기 시작했다.

헌병대에 인계된 정씨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으나 군사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언론 보도로 사실을 접한 검찰은 재수사를 벌이는 한편 검찰시민위원회를 열어 '사안이 중하고 피해회복 노력이 없다'는 만장일치 권고에 따라 정씨를 구속기소했다. 다만 시일이 너무 지난 탓에 음주사실은 밝혀내지 못했다.

/강석훈 기자

워킹맘 워라벨 행복찾기

전주여성인력개발센터서 진행

전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9일 취업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일과 생활의균형을 위한 가족지원프로그램인 '워킹맘 워라밸 행복찾기'를 센터 내에서 진행했다.

일과 육아, 집안일 등 삼중고를 겪고 있는 워킹맘들은 직장과 가정 사이에서 갈등에 부딪히고 자존감도 떨어지면서 일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다.

센터는 이에 따라 워킹맘 워라밸 행복찾기를 통해 다양한 가족놀이와 미술심리치료 등 엄마와 자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펼쳤다. 또 가족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해답을 찾는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

박성숙 전주여성인력개발센터 관장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엄마와 자녀가 함께 행복을 공감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서로 소통하며 빗진 마음을 내려놓고 자녀에게 이해받는 엄마로서 워킹맘들의 행복을 찾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며 "어렵게 취업에 성공한 여성들이 아이들과 관계 개선을 통해 더 행복한 사회생활을 하여 본인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 할 수 있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한편, 전주여성인력개발센터는 '경력단절여성 등에 관한 경제활동촉진법'에 근거해 경력 단절 여성의 취업을 위해 상담 및 교육훈련부터 취업알선 및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촉진을 위한 취업서비스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여성인력개발센터 홈페이지(www.jjwoman.or.kr)를 참고하거나, 전화(063-232-2352~3)로 문의하면 취업 관련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송효철 기자

전주매일 PDF 지면보기 서비스 www.jjmaeil.com에서

범죄신고 112 화재신고 119